



12면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인정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음 11월 6일) 제2918호

대표전화 (063)288-9700

## 도내 103명 신규 확진자 발생 일상회복 후폭풍 병상 가동 한계 임박

전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 목표  
민관합동 방역점검반 구성 4대 극복방안 제시  
조봉업 행정부지사, 방역동참 긴급 호소

8일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 도내에도 103명이 발생하며 역대 최다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금의 환자발생 추세라면 의료대응과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북도는 일상회복의 후폭풍으로 일일 확진자 병상 가동률 등 각종 방역지표가 위기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발생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도민의 방역수칙 준수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단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신규 확진자 절대적 감소를 목표로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4대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14개 시·군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우선 격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합동영상회의에 시·군 단체장(또는 부단체장) 참석을 의무화해 방역대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동시에 방역대책 추진동력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 실국장을 방역책

임관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직접 점검을 의무화한다. 민간단체·협회 등과 '민관 합동 방역점검반'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내와 점검을 강화해 변화된 방역수칙 조기 정착에도 앞장선다. 이에 필요한 홍보 물품으로 기존에 배포한 홍보 전단지 40만 부 외에도 어께띠 1만 장, 피켓 76개, 플래카드 200장 등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마지막으로 부단체장 주관 '방역 점검·홍보의 날'을 운영해 기초단체 읍면동에서부터 민간 자생단체·협회, 다중이용시설 협회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실천문화운동 가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연말 모임이나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 없을까"라며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일상회복 지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부지사는 이어 "민간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하지 못하면,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은 불가피하다"라며 "백신 추가접종, 소아·청소년 기본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내 가족·우리 이웃의 삶과 일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가 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와 건립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서예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건립 운영자문위원회가 열렸다.



##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첫 발'

전북도, 비엔날레관 건립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운영 주요 내용 보고 진행... 2024년 완공 목표

서예 문화의 진흥 거점 공간으로 거점 답답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의 첫 발이 내디뎠다. 전북도는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와 건립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하 비엔날레관)건립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예 관련 학과 교수와 도의원 서예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비엔날레관 건립 자문위원회는 기본계획부터 건축, 향후 운영계획 등 비엔날레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 책임을 담당

하고 있는 장세길 연구원(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비엔날레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을 진행한 결과로 사업추진 방향과 건립 및 운영계획,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보고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비엔날레관 건립을 통해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은 그곳인 서예를 국가적 상징 공간이자 한국서예 진흥의 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비엔날레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서예의 이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서예인과 도민이 함께하

는 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의 도내 건립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9년 '서예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예 문화를 진흥·발전시키기 위한 거점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예인과 서예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내렸다. 거점 공간으로 국내 최초로 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해 25년간 비엔날레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춘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내년엔 설계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운영을 진행하는 비엔날레관은 2023년에는 착공이 진행돼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이채로운 동남아어  
한번 배워보실래요?

전북대, 부산외대와 협력  
27일부터 2주간 집체교육  
1인 1실 기숙사 등 제공

전북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2021 동계 동남아언어 캠프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부산외대에서 열린다. 2019년 여름 전북대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세 물결을 맞은 동남아언어 캠프는 2주간 총 50시간의 집체교육방식으로 동남아언어와 이터어 6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언어캠프는 지난 여름 전북대와 부산외대 간 체결된 학점교류협정에 따라 전북대 재학생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부산외대에서는 수강생 전원에게 1인 1실 기숙사 및 1인 2식의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는 언어강좌 외에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역설명회와 동남아 지역 연구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동남아지역학 관련 대학원 진학 설명회도 기획해 언어캠프 기간 중에 개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도의회 예결위, 내년 본예산 심사 마쳐

도 9조971억원 · 교육청 4조2377억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지난 7일 도지사가 제출한 9조97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4조2445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2022년 전북도 예산을 34.3억원 일부 삭감해 9조971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전북교육청 예산도 68.5억원 삭감한 4조2377억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상사업 영업자들에게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도 제출안보

다 10만원 증액해 민생회복효과 증대를 도모했다. '지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는 13억2,000만원 대폭 삭감했는데, 요구 예산이 15억원 가량이어서 일부만 반영된 셈이 됐다. '세계잡버리 성공기원 대한민국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예산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초대의회 회의록 한글DB 구축사업' 6,000만원 등 총 25개 사업에 34억 2,878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 예산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서 총원이 원활하지 않아 30여원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코로나19 장

기화로 35억원이 삭감됐다. 또, '통일여량강화 국외연수'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시·군 교육청의 감사 활동비인 '감사관리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등 총 22개 사업에 68억5,300만원이 삭감됐다. 김정수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는 중점 목표를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됐는지, 세입추계는 적정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안은 오는 13일 전북도의회 제386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처리된다. /유호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